



**법석 조대** 지운 스님 관주 법흥사 회주

맑은 마음이 간절하면 인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요

"인력을 세우고 매진하면 인과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늘 마음속에서 염원하고 늘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수락·불암산 공사' 도 중단돼야

14일 불교계와 정부, LG건설, 서울고속도로(주)가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인접한 수락산 불암산 관동터널 공사도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도봉시민연대는 19일 주민 설명회에서 "수락산·불암산 관동터널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



다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락산 불암산 노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세 개의 산을 관통하는 기존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우회노선을 찾아야 한다" 주장하고 20일부터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연대는 1만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락산·불암산 터널을 막기로 했다.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천불가

1. 불자님께서 법회 시간 외에도 천불가를 자주 부르십니까?  
① 자주 부른다 ② 가끔 부른다 ③ 거의 부르지 않는다

2. 천불가를 몇 곡 정도 외우십니까?  
① 5곡 미만 ② 10곡 미만 ③ 20곡 미만 ④ 20곡 이상

설문 참여: 8월 29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5호 9면에 실습니다.

## '수행+휴식' 주말수련회 확산

### 전국 23개 사찰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종단, 보광·월정사 시범 실시 등 적극 지원 불교아카데미, 워크숍 개최·전문강사 양성

국내 10개 사업장중 3개 사업장(29.6%)이 토요일무제 등을 실시중이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최근 5개월간 48.7%나 증가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사찰 주말수련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3일 현재 파악된 사찰 주말수련회는 무려 23곳. 대부분 을 초부터 준비를 시작, 7월부터 시작된 금요일의 주5일제 근무를 전후해 급속히 늘었다. 사찰의 주말 수련프로그램은 대체로 수행과 휴식을 병행한 '생활의 재충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주말수련회를 마련한 대둔사의 '새벽술길' 프로그램과 강

프로그램 등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사장 윤현수가 17일 서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 근무제 대비 경영자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은 "사찰 수련프로그램이 일년에 한두번 이색 체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흥미와 보람, 수행적 가치를 함께 지니는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불교아카데미는 주말수련회를 대비한 '가족프로그램 안내자 양성과정'도 오는 10월 9일~10월11일 서울 드림텔에서 개최한다.

사찰 주말수련회는 시민들이 산사

◆주말 수련회 여는 사찰

사찰명	수련 일시	연락처
해인 대운사	매월 13주 주말	(011)034-5922-3
보성 대운사	매월 13주 주말	(011)052-1705
영주 영운사	매월 13주 주말	(011)051-1854
나주 불암사	매 주말	(011)037-3440
김포 불암사	매 주말	(031)474-8228
창원 사명사	매 주말	(055)091-6405
홍익 속사사	매월 2주(일)	(054)672-7578
영주 부석사	매월 13주(일) 주말	(054)602-3484
충남 칠정사	매 주말	(051)402-3312
금강산관음사	매 주말	(033)374-6302
해운 속사사	매 주말	(055)002-0001
충남 칠정사	매 주말	(051)744-1889
서울 길상사	매월 13주(일) 주말	(02)3872-9461
서울 조계사	매 주말	(02)720-1300
서울 불암사	매 주말	(02)018-1952
서울 보현사	매 주말	(02)914-1915
서울 삼양사	매월 13주(일) 주말	(02)032-6400
서울 흥취사	매월 13주(일) 주말	(02)061-7970
서울 천축사	매 주말	(02)764-1474
고양 총곡사	매월 13주(일) 주말	(02)081-7053
보령주 보현사	8/30~9/1(사) 13주(일)	(011)094-1318
평화 불암사	8/13~15(사) 13주(일)	(031)002-6981
영남 관음사	8/20~22, 10/20~22	(054)325-0318

### 비구니스님 폭행 공식사과

'북한산 도로' 시공사 대표 보상 등 3개항 약속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가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LG건설 김갑열 사장과 서울고속도로 최병갑 사장 등은 21일 LG제 품매운동추진본부'를 방문,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 불교 신행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관동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이 발생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세간이 곧 출세간 3개월간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간 스님들이 정진마치고 23일 민행길에 나섰다. 수행 남자들은 본래 결제 해제와 상관없이 사시사찰 정진하지만 잠시 동안의 민행 또한 수행에 다름 아니다. 사진은 23일 하안거 해제법회 후 민행 떠나는 장성 백암사 운문선원의 스님들. 백암사=고영배기자

중국 종교국장 일행 초청 9월 2일 해인사 등 방문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염소문 국장(장관급) 등 11명의 방문단이 조계종 공식초청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다.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중국정부 종교국장 방문단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법주사 미륵대불, 불국사 석굴암 등 전통사찰을 찾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인하고, 중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양월드컵 축구경기장, 판문점 자유의 집 등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도 다질 계획이다.

중국 종교국 방문단은 염소문 국장을 비롯 사종 국가종교사무국 1국장, 국외 외사국 부국장, 주신속 산서성 민족종교사무국장, 름문빈 복건성 민족종교사무국장, 오국재 녀화회족 자치구 종교사무국장, 염급화 주해시 종교사무국장, 김화 김림성 종교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중국정부 종교국 대표단의 방문은 민간외교의 효과 뿐 아니라, 한국불교가 중국에 여수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범부견해 타파·득실 시비 끊어야”

하안거 해제, 조계종 1855·태고종 30명 정진

임오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23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 조계종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암사, 덕숭총림 수덕사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1개 전국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이날 해인사 해제법회에서 조계종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해제를 앞두고 발간한 범행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모두 1천8백55명(주지등 외 호스님 290명 제외)의 스님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대 총림은 138명이며, 비구는 51개 선원에서 855명, 비구는 33곳의 선원에서 859명이 안거에 참여했다.

태고종도 선암사 칠정선원, 담양 용화사선원 등 2곳에서 총 30여명의 스님이 안거에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w@buddhista.com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고, 기적과 영험이 용솨음치는 도량!!

초대합니다

**大韓佛教總和宗 雲住山 道禪寺 落成大法會**

高僧, 大德스님 여러분을 모시고, 雲住山 道禪寺의 落成法會를 奉행코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日時: 佛紀 2546년 9월 13日(陰 8月 7日) 金요일 오전 10時 ■ 場所: 雲住山 道禪寺 藥師大佛殿

● 1부 落成法會: 大韓佛教總和宗 宗正 東光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 2부 護摩行事: 大阿闍梨 吉田 靜 峰(修驗本宗 靜峯院) (日本스님일행) 韓日佛敎文化交流의 일환으로, 1400年의 역사를 가진 日本護摩法會를 한국최초로 소개함과 동시에 자매사찰인 道禪寺에서 개인축원과 영가천도제를 겸하여 奉행함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 2리 1488 전화: (054)246-4467 / 팩스: (054)241-4748

大韓佛教總和宗 雲住山 道禪寺 住持 雲山 合掌